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h1>보 도 자 료</h1>		 광복 80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8쪽	
배포일시	2025. 8.12(화)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전시		
연락처	323-936-3014/ tammy@kccla.org	담당자	Tammy Cho		

<나전장의 도안실> LA특별전 개최

- LA한국문화원 · 서울공예박물관 공동 개최, 8.21~10.10 전시 -
 - 천 년의 전통 나전칠기, 도안 속 장인정신을 담다 -

- ▶ 전시명: <나전장의 도안실> LA특별전 (The Drawings of Mother-of-Pearl Inlay Artisans)
- ▶ 공동주최: LA한국문화원, 서울공예박물관
-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 전시기간: 2025. 8.21(목)-10.10(금) / 개막식 8.21(목) 18:00-21:00
- * 전시장 개장: 월-금 9:00 -17:00
- ▶ 장소: LA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문의: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 ▶ 불임: 1. 전시 개요와 포스터 1부
 2. 전시 구성도 1부
 3. 대표 출품작 이미지 및 설명 등 1부

LA한국문화원(원장 이해돈)은 서울공예박물관(관장 김수정)과 공동으로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문화원 2층 전시장에서 「나전장의 도안실」 (The Drawings of Mother-of-Pearl Inlay Artisans)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투어링 케이-아츠(Touring K-Arts)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의 후원을 받아 양 기관이 공동 기획했다. 고려시대부터 약 1,000년에 걸쳐 계승되어 온 한국의 대표 전통 공예 ‘나전칠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미국 관람객에게 소개하는 전시다.

나전칠기는 자개의 섬세한 빛과 정교한 옷칠 기법이 어우러진 예술로, 1966년 국가무형문화재 ‘나전장’으로 지정되었다. 현재도 기능보유자들이 전통 기법을 이어가며, 한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특히 한국 나전칠공예의 근대화를 이끈 장인들과 그 계보를 잇는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전통 공예가 시대 변화 속에서 어떻게 계승·발전되어 왔는지를 조명한다. 완성품 이전 단계인 ‘도안(圖案)’에 주목함으로써, 공예품의 뒷면에 숨겨진 장인정신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전시와 연계하여 김수정 관장의 「한국 나전칠공예」 강연도 열릴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현지 미국인과 한인 사회의 나전칠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고려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우리 나전칠공예의 역사와 전통을 세계적 맥락 속에서 짚어보고, 동시대 작가들의 창작 활동 전반을 소개하여 한국 나전칠공예의 특별함과 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해돈 문화원장은 “이번 전시는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캐나다 오타와까지 이어지는 순회전으로, 북미 지역에서 한국 전통 공예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분들이 나전칠기의 역사와 현재를 경험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정 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근대적 ‘도안’을 도입하고 도구를 개량해 한국 나전칠공예를 산업화·대중화한 여섯 명의 나전장을 소개한다”며 “나전장인들의 창작 과정에 깃든 도전과 장인정신을 깊이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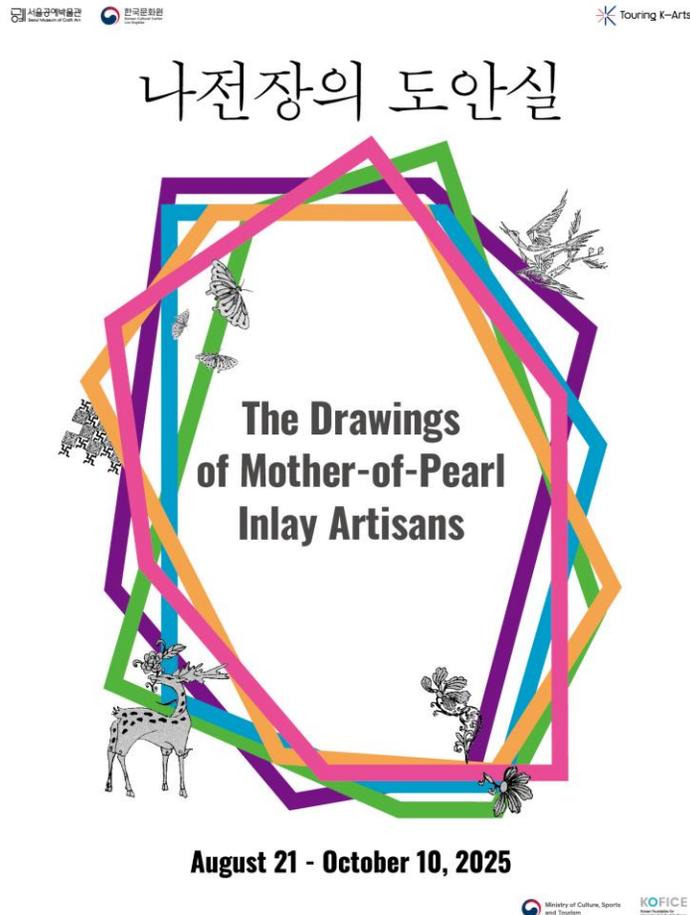
「나전장의 도안실」 LA특별전 개막식은 8월 21일(목) 오후 6시 LA한국문화원에서 열리며, 김수정 관장이 직접 참석하고 서울공예박물관 정은주 학예사의 전시 해설도 진행된다.

전시는 8.22(금)부터 10.10(금)까지 일반에 공개하며, 더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태미 조 (323-936-3014)로 연락하면 된다. /끝/

□ 전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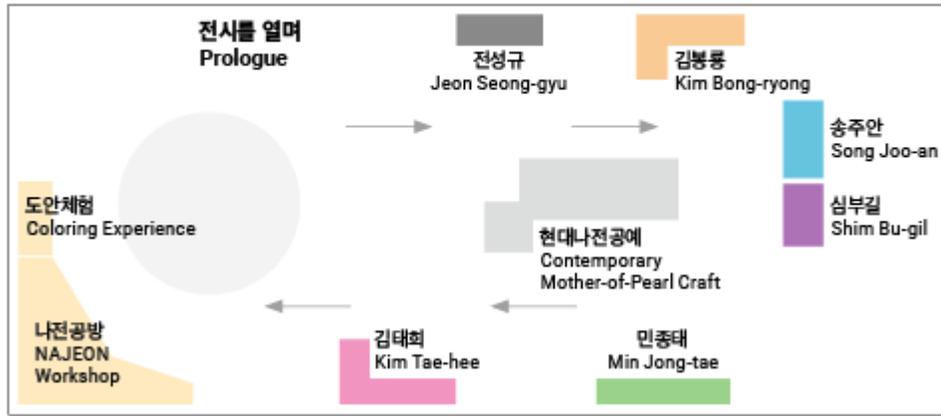
- 전 시 명 : 《나전장의 도안실》 The Drawings of Mother-of-Pearl Inlay Artisans
- 전시기간 : 2025.8.21.(목)~10.10.(금)
- 전시장소 : LA 한국문화원 1&2 층 전시실
- 전시내용 : 우리나라 근현대를 대표하는 나전장 6인(전성규·김봉룡·송주안·심부길·김태희·민종태)의 나전도안과 대표 작품 및 오늘날 현대 나전철공예를 이끌어 나가는 장인·작가들의 작품 전시

□ 전시 포스터



< 전시 구성도 >

Exhibition Map
전시 안내



<p>전성규 Jeon Seong-gyu</p>	<p>전성규(1880 전후~1940)는 조선과 근대 나전칠공예를 잇는 장인이자 계몽운동가다. 공업용 신탱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여러 장의 나전을 정교하게 오릴 수 있도록 해(주름질 기법) 나전칠기 대량생산의 길을 열어 우리 나전칠공예를 세계에 알렸다. 1923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할 만큼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가진 그는 도안 제작에 능했으며 특히 산수화를 즐겨 그리며 이를 도안화하여 작업했다.</p>	 
<p>김봉룡 Kim Bong-ryong</p>	<p>김봉룡(1902~1994)은 1925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 장식미술 및 근대공업 박람회>에 스승 전성규와 함께 작품을 출품해 은상을 수상해 민족의 자존감을 드높인 나전장이다.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거의 매년 추천작가로 출품하였다. 유려한 곡선을 사용해 자신만의 넝쿨무늬를 발전시켰으며 1966년 대한민국 첫 국가무형유산 나전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p>	
<p>송주안 Song Joo-an</p>	<p>송주안(1901~1981)은 전성규의 제자로 ‘끓음질’ 기법을 활용하여 회화적인 산수문과 다양한 화조문을 자유롭게 표현한 나전장이다. 젊은 시절 전성규와 함께 일본의 조선나전사에서 활동하였고, 이후에는 생의 대부분을 통영에서 나전칠기를 제작하며 보냈다. 1979년 국가무형유산 나전장(끓음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p>	

<p>심부길 Shim Bu-gil</p>	<p>심부길(1905~1996) 역시 전성규의 제자로 기하학적인 무늬를 기물에 빼곡하게 장식하는 끊음질의 대가이다. 생전에는 다양한 나전칠공방을 돌며 출장일을 다녔으며 1975년 국가무형유산 나전장(끊음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p>	
<p>민종태 Min Jong-tae</p>	<p>민종태(1915~1998)는 전성규의 문하생이었으며 1934년 조선미술전람회와 1949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한 나전장이다. 1970~80년대 서울, 경기 지역에서 나전공방을 운영하며 크고 웅장한 작업을 하였다. 1996년 서울시 무형유산 나전칠기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p>	
<p>김태희 Kim Tae-hee</p>	<p>김태희(1916~1994)는 1957년~1960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4회 연속 특선을 한 나전장이다. 현대적이면서 독창적인 문양을 창출하고 다양한 색의 옷칠을 한 나전작품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1992년 국가무형유산 나전칠기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p>	

현대나전공예

<p>김성수 Kim Seong-soo</p>	<p>현대 칠공예가 김성수 (金聖洙, 1935~2025)는 1951년 경상남도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1기생으로 입문해 김봉룡으로부터 전통 나전칠공예를 익혔고, 전통 나전칠공예의 옷칠을 현대미술에 접목하여 한국의 현대 '옷칠회화'를 개척한 작가이다.</p>	
<p>송방웅 Song Bang-ung</p>	<p>前 국가무형유산 나전장 보유자 송방웅 (宋芳雄, 1940~2020)은 송주안의 외아들이자 수제자로, 부친의 뒤를 이어 1990년에 국가무형유산 나전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1977년 인간문화재공예전 장려상, 1985년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 등을 통해 장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졌고, 생애 마지막까지 나전 공예의 창작과 전승에 헌신하며 한국 전통 공예계에 큰 영향을 남겼다.</p>	
<p>이형만 Lee Hyeong-man</p>	<p>국가무형유산 나전장 보유자 이형만 (李亨萬, 1946~)은 김봉룡의 제자로 1996년 스승의 뒤를 이어 국가무형유산 나전장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스승인 김봉룡으로부터 오랫동안 도제식으로 나전칠공예를 배웠으며 김봉룡과 비교하면 선이 더 굵고 대담한 특징을 보인다. 현재 그는 원주에서 창작 활동과 함께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p>	
<p>손대현 Sohn Dae-Hyeon</p>	<p>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칠장(옷칠) 보유자 손대현 (孫大鉉, 1950~)은 민중태의 공방에서 나전칠공예의 기술을 익힌 뒤, 전통 옷칠 공예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전통 옷칠 기법과 현대적 재료와 감각을 실험하며 옷칠의 쓰임과 표현 영역을 넓혀 왔으며, 1991년 대한민국 나전칠기 명장으로 인정된 데 이어 1996년에는 민중태의 뒤를 이어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칠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p>	

<p>최상훈 Choi Sang- hoon</p>	<p>국가무형유산 나전장 보유자 최상훈(崔相勳, 1954~)은 민중태의 수제자로 심부길에게서도 끊임질을 배워 줄음질과 끊임질 모두에 능한 인물이다. 그는 전통을 지키는 장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는 동시에, 시대의 흐름을 수용하며 나전칠공예를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3년에는 이러한 장인 정신과 탁월한 기량을 평가받아 국가무형유산 나전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p>	
<p>김설 Kim Seol</p>	<p>현대 칠공예가 김설 (金雪, 1955~)은 통영 출신의 칠공예 작가로, 전통 견칠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 왔다. 한국 옷칠회화의 개척자인 김성수에게 사사하였으며, 국내외 작가 교류 및 옷칠 분야 후진 교육에 힘써왔다. 현재도 한국 칠예 예술의 지속적 발전을 이끄는 주요 인물로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p>	